

전주시 이(異)업종 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

소상공인 권익보호 및 지역봉사활동 도모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 500여명 참석

전주시 이(異)업종 협의회(회장 한경진)는 지난 20일 완산구 세븐테라스에서 회장 이.취임 및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이(異)업종 협의회(회장 한경진)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김양원 전주시부시장, 이병철 전북도의회 의원,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이명기 완주와일드축제위원장, 차상철 연구정보원장, 장남혁 소통협력관, 신병구 정책비서관, 성상용 오송재지킴이회장, 두완정 전북도중소상공인회장, 박병모 가구조합 이사장, 강보곤 예교 대표, 최형철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고형석 회장에서 2대 한경진 회장으로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이(異)업종협의회는 2014년부터 약 2년의 설계를 거쳐 회원 모집, 목적, 방향 등 각 분야별 소상공인들이 권익보호 및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 2016년 창설 된 전주시 소상공인 협의 단체다.

이 협의회는 그동안 전주시 효자 4.5동 지역 주민들에게 매년 식사대접을 해오고 있으며 관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많은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부 행사에서는 최형아MC 진행으로 박부철 부회장의 노래 등 흥겨운 한마당 잔치로 펼쳐졌다.



전주시 이(異)업종 협의회는 지난 20일 완산구 세븐테라스에서 고형석 전 회장, 한경진 회장의 이.취임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송성환 도의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수있다."며, "소상공인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길 소망하고 율한해 소상공인 모두가 한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이(異)업종 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형석 전 회장은 "이업종은 중소기업 5개 단체가 하나되어 희망봉산단으로 시작한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3년이란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며, "이업종의 수레바퀴를 이어갈 한경진 회장에게 회장직을 넘기고 평회원으로 돌아가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이임사를 했다.

한경진 회장은 "회원간 공유하며 결집하여 우리의 권익을 외치고 어려운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는 이(異)업종 협의회가 있어 큰 힘이된다."며, "한단계 더 발전하는 이(異)업종 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삼동회 무주종합복지관, 고령장애인 플로리스트 교육 진행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는 장애인 직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9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에 선정되어 고령장애인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플로리스트 교육(부제: 실버장애인 꽃나들이 갑니다.)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의 자립적인 경제활동이나 정서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60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관심을 유도하며, 나아가 소득창출 연계까지 가능한 자립 기반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교육 사업이다.

무주종합복지관 이 관장은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프로그램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며, 경제적, 정서적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복지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동참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지역주민의 따뜻한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인 만큼 우리 이웃에게 그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하자고 다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그린나래 찾아가는 효 문화 예술 공연단, 재능기부 봉사

그린나래 찾아가는 효 문화 예술 공연단(단장 한은정)은 지난 19일 관내 따뜻한 사람의집을 찾아 지역 어르신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효 문화 예술 공연단은 따뜻한사람의집에서 요양병원 어르신들을 위해 노래와 춤 공연으로 흥을 돋궈주고 식사를 대접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사장에 있던 김모 어르신은 행사를 본 후 "이렇게 공연단이 직접 찾아와 우리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다시 찾아와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은정 단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온정의 손길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효 문화 예술 공연단은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효 문화 예술단은 지역 요양병원 및 소외계층을 찾아다니며 단원들의 재능을 선보이며 여러 먹거리 불거리 등 준비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웃음거리를 제공해주는 단체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 강문경 교수, 한국법학회 공로상 수상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강문경 교수(공공인재학부)가 최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19년 한중법학회 학술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강 교수는 2017년부터 한중법학회 편집이사로 재임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중국법연구'의 발간을 통해 학술지의 수준을 높이고 한·중 학술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강 교수는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국제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외 학회에서 한·중 FTA를 비롯한 중국 관련 통상법제 논문을 활발히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특구 법제 분석을 통한 새만금지역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한편, 올해로 26년을 맞은 한중법학회는 중국법연구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지녀오며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이승훈 '사계절' 익산 인갤러리서 전시

한국화가 이승훈의 '사계절'이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익산 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원풍경으로 수목담채화로 그린 작품들이 30여점 전시된다.

특히, 사계절에 나타나는 계곡과 풍경을 담아 그렸다. 최근 작품으로 지리산과 내면산, 대둔산 등의 계곡과 섬을 담았다.

/김재훈 기자



고창군 아산면, 체육회장 이취임식 열어

고창군 아산면 체육회가 지난 19일 아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기관·단체장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하오재 회장 이임식과 제11대 김철주 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제10대 하오재 이임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체육회 수장으로 서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체육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제11대 아산면 체육회장에 취임한 김철주 회장은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며 "별도 청년회가 없는 만큼 아산면 체육회가 청년들의 뭉까지 다해 지역을 아우르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체육회 발전 공로로 아산면체육회 이종면 사무국장, 강삼용 재무국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또 신일 김철주 회장은 전임 하오재 회장에게 재직기념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9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288-6874	남원지사 602-3896	고창지사 563-6989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서신지사 272-9417	팔복지사 253-6984	남원지사 602-3895	정읍지사 538-3787
효지사 010-9845-9855	군산지사 010-6789-020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